

## 일본의 양계소식

윤 병 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전임연구원  
농학박사



### 산 란 계

#### 산란계 사육호수, 사육수수 감소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축산통계에 의하면 종계 사육자를 제외한 산란계(병아리와 성계 암탉)의 사육호수는 전년대비 5.8% 감소한 3,110호이고, 사육수수는 1.9% 감소한 1억7,820만수였다. 성계 암탉의 사육수수는 1.8% 감소한 1억3,991만수였다. 사육규모는 모든 계층에서 사육호수와 수수가 감소하였으나 10만수 이상 규모의 사육호수는 전체 12.4% 사육수수는 65.2%의 점유율을 높였다.

사육호수의 감소는 사육자의 고령화와 배합사료가격의 상승에 의한 폐업에 기인하며 1호당 성계암탉의 사육수수는 1.8%(1,800수 증가) 증가한 4만5천수가 되었다.

한편 종계의 경우 병아리만이 사육자와 학교 또는 시험장 등의 비영리 사육자를 제외한 성계 암탉(1천수 이상)의 사육호수는 5.3%(158호) 감소한 2,832호로 사육수수로 2.4%(341만 1천수) 감소한 1억 3,903만수였다. 지역별로는 사육호수는 증가는 4개 지방이고 감소는 37개 지방이었다, 사육호수는 13지방에서 증가하였고 34개 지방은 감소하였다. 성계 암탉의 사육수수가 증가 한 지방은 (1)이바라기(茨城), (2)지바(千葉), (3)아이지(愛知), (4)가고시마(鹿兒島), (5)히로시마(廣島) 등이었다. 전체 사육호수와 사육수수 중에서 10만수 이상 규모의 비율은 사육호수 중 12.4%, 사육수수 중 65.2%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계명신문 발췌)

#### 2010년 보조금 64억엔(¥) 요청

농림수산성은 2010년도 요구예산을 결정하여 양계관련기금으로 난간안정기금의 보조인 「계란가격안정대책사업」을 2009년을 8.4% 상회하는 13억 5,400만엔(¥, 이하 동일), 배합사료 보조(異常)기금 적립금 「배합사료가격안정대책사업」은 2009년도와 동일한 50억엔을 요구하였다.

식육이나 계란 처리의 효율화와 품질·위생관리 향상을 목적으로 도축·처리장이나 GP센터의 정비를 위해 조성하는 「일본산 식육 등의 공급력 강화와 생산의 특수성 확보, 산지수익성 향상」은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 403억 4천만 엔과 신규 산지수익성향 프로젝트 사업비 43억 8천만 엔 중에서 지원한다.

사료대책은 배합사료가격의 급격한 상승완화를 위해 국가와 경영주가 반씩 부담하는 이상기금적립금 「배합사료가격안정대책사업」 2009년도와 동일한 50억 엔이다. 사료곡물의 일본 내 수급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량의 곡물(옥수수, 수수)을 비축하는 「사료곡물비축대책사업」은 60만 톤에 해당하는 43억 5,600만 엔이고, 농후사료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에코사료(식품부산물 사료화) 긴급증산대책사업」은 6억6,300만 엔, 「지역자원활용형에코사료증산추진사업」에는 2억 5천만 엔으로 2009년도와 동일한 액수이다.

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쌀가루, 사료용쌀, 보리, 콩, 사료작물의 생산 확대 등을 지원하는 「논 등의 유효활용에 의한 사료공급력향상」에 247억3,200만 엔으로, 쌀가루나 사료용쌀 재배면적의 확대에 10a당 55,000엔의 지원금을 조성한다.(계명신문 발췌)

## 육 계

### 계분퇴비 제조특허 획득

이와떼깁(岩手縣) 중앙농업개량보급센터직원(高橋好範)이 고안한 유기퇴비와 유기퇴비제조 방법이 특허를 획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계분 등의 유기물에 토양개량제로 시판되고 있는 유향을 약 1% 혼합하여 발효시키면 퇴비 중에 있는 미생물의 활동으로 발생한 황산과 암모니아가 반응하여 화학비료의 황산과 동일한 성분이 되어 제품의 질소함유량이 1% 증가하는 한편, 암모니아가 공기 중으로 휘발되는 것을 억제하여 악취억제도 기대할 수 있다.

계산상으로는 논에서 사용하는 기비 구입량의 30%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떼깁 지역은 전국 3위의 육계생산지역으로 「풍부한 계분을 지역자원으로 유효하게 활용하여 질소함유량이 높은 저비용비료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2009년도 예산으로 육계를 생산하는 2개회사를 공모하여 기술도입을 위한 시설정비 비용을 보조하고 지역 내 비료제조업자와 공동으로 저비용 비료개발을 시작하여 2010년도 재배면적에 맞추어 계분을 원료로 한 유기질 비료를 발매할 예정이다.(계명신문 발췌)

### 2008년도 양계산물 자급률 포함세 유지

농림수산성은 2008년도 계란과 닭고기의 자급률이 계란 96%, 닭고기는 전년대비 1포인트 이상 상승하여 70%에 도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08년도 일본의 계란생산량은 254만7천 톤으로 전년대

비 1.5% 감소하였고, 수입량 11만2천 톤, 수출량 1천 톤이었고 일본 소비자용 계란은 265만8천 톤이었다.

닭고기의 일본생산량은 138만3천 톤으로 1.5% 증가하였고 수입량은 6.3% 증가한 64만3천 톤, 수출량 7천 톤을 기록하였다. 이중 일본 소비자용은 닭고기는 197만7천 톤으로 0.6% 증가하였다. 쌀 소비량의 0.2% 감소로 단백질과 지방이 각각 0.1% 증가하여 바람직한 식량소비를 나타내는 비율은 단백질 13.0%, 지방 28.9%, 탄수화물 58.1%를 보였다.

국민 1인당 1년간 공급량은 계란이 전년대비 0.3kg 감소한 16.8kg이었고, 반면 닭고기는 0.1kg 증가한 10.8kg 이었다(소고기: 5.7kg, 돼지고기: 11.7kg). 한편 전체 사료자급률은 사료용 쌀의 생산량이 확대되어 전년도를 1포인트 상회하는 26% 상승하였다.(계명신문 발췌)

### 산와(さんわ) 코퍼레이션 ISO22000 획득

『순계 나고야 코친』 등의 닭고기 도매·가공·판매의 대기업인 (주)산와 코퍼레이션은 '09년 2월 아이지깁(愛知縣)으로부터 「아이지브랜드기업」으로 인증된 이후 8월에는 국제규격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 『ISO22000』의 인증을 취득하였다.

(주)산와 코퍼레이션은 농장에서부터 조리·가공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독자기준에 의한 일관사업체제의 확립을 고집하여 식품의 안전·안심이 점점 더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더욱 우수한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07년부터 인증을 추진하여 이번에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아 인증을 취득하였다.(계명신문 발췌) 양계